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의약품·전기차 충전기 제조기업, 김제에 '등지'

헬바이오테PDRN, 자유무역지역에 생산설비 투자 확정 2025년까지 370억원 투입, 67명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의료용 의약품 생산과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제조할 투자기업이 김제에 등지를 든다. (관련사진 3면)
전북도는 1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과 정성주 김제시장, 유재열 김제자유무역지역위원장, 구세현 (주)헬바이오테PDRN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헬바이오테PDRN은 오는 2025년까지 김제자유무역지역내 3,045㎡에 의약품 의약품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공장의 설비를 위해 370억원을 투자하고 67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모회사인 (주)헬바이오테는 지난 7년 가축생산 제조업으로 시작해 자동차용 피혁사업으로 사업 다변화를 꾀해 2015년에는 1억불 이상을 판매한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 의약품 제조업으로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등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헬바이오테PDRN은 코스피 상장기업인 (주)헬바이오테의 향후 시장 성장

성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이번 투자는 미주 수출을 목표로 연어 정액 추출 원재료인 PDRN(피디알엔)을 활용한 의약품 제품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시장 확대에 따른 충전기 제조 및 판매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DRN은 인체 DNA와 유사한 조직재생 물질로 생리적으로 재생 및 대사 활성을 자극하는 작용을 통해 조직, 각막 재생 등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원재료이다.
기업 관계자는 "군산대 산학협력단과 PDRN 추출 기술 공동 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해 재생의약품 연구개발과 생산 시설 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난 11월에 EV 충전기 제품 발표회를 통해 공개한 국제 개방형 충전 통신규약인 OCPP(개방형 충전 통신규약) 1.6을 인증받은 자체 브랜드 sVILUCY(이브이 루시) 생산 라인도 설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김제=곽노태 기자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에 자리한 기업이 자체 연구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를 위한 설비 투자협약에까지 이어지는 훌륭한 사례이다"며 "장인정신을 지켜온 기업답게 전북과 함께 동반 성장하자"고 말했다.
김 시장은 또 "이번 신규 투자가 지역 일자리 등 지역경제에 상승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전북도에서 성공할 기업을 위해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투자를 결심한 (주)헬바이오테PDRN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계획대로 수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비만 갖추면 입주 시 즉시 가동가능한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주)헬바이오테PDRN의 입주에 따라 입주를 100%를 달성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증축사업 역시 추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수 기자 · 김제=곽노태 기자



1일 전주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출범식이 열렸다. 전북도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사진=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희망2023 나눔캠페인 '출발'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 전북'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동안 성금 모금
김관영 도지사, '나눔리더' 캠페인 1호 가입
사랑의 온도탑 모금 목표액은 84억5000만원
취약계층 지역사회 안전 등에 중점 지원

로건인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전북'처럼 도민이 베풀어준 작은 온기는 우리 전북을 지탱하는 뜨거운 연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사랑의 온도탑의 눈금이 100도씨를 훌쩍 넘어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나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따뜻하고 밝은 나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힘을 합쳐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나눔 캠페인 참여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개설된 성금접수 창구를 이용하거나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기부 및 AR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참여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기부영수증 발급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는 1일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서 '희망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의 대장정에 나선다.
특히 나눔캠페인 시작과 함께 김관영 도지사가 1년 내 100만원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개인에게 부여되는 '나눔리더'에 캠페인 1호로 가입해 눈길을 끌었다.
'희망2023 나눔캠페인'을 진행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온도탑'을 나눔의 상징으로 정하고, 199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창립된 이래 매년 연말연시 집중 공동모금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번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목표액인 84억5000만원의 1%인 8450만원이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가 1도씩 올라가게 되며, 모여진 성금은 전액 도내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안전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회적 돌봄 △교육 및 자립 4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랑의열매 전달식과, 캠페인 1호 기부자 성금 전달식(기부자 이지태 등 3명), 배분사업 지원금 전달식(전달기관 플라랑스 지역이동센터 등 4개소 대표) 등이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캠페인 열

전주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천년의 자부심 만나는 축제'로

시, 내년 4월 개막 11월 폐막까지 4개 분야 추진
6일 슬로건 제정 선포식 열고 사업 취지 홍보

전주시가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을 '전주 천년의 자부심을 만나는 축제'로 준비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중국 청두(成都)·메이저우(梅州), 일본 시즈오카현(靜岡縣)과 다양한 문화교류를 추진해 전주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화합의 장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의 비전을 '전주 천년의 역사문화로, 하나 되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정하고 내년 4월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폐막식에 이르기까지 3개국 4개 도시가 '천년 문화도시 전주의 자부심'을 만날 수 있도록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6일 라한호텔에서 '천년 문화도시 전주의 자부심을 만나다.' 슬로건 제정 선포식을 열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의 취지와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http://council.jinan.go.kr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 제9대 진안군의회 |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